

## 나로 먼저

\*날짜 : 3월 15일

\*찬송 : 453장 (1절, 2절)

\*기도 : 구역원 중에서

\*말씀 : 누가복음 9: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 글을 읽고 질문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처럼 호언장담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 하심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궁핍이나 사람들의 배척과 같은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생각하기) 나는 주님을 위해, 출세와 성공을 포기하고 있는가, 출세와 성공을 위해, 주님을 포기하고 있는가?

▶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심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생각하기) 나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로 인해 낭패를 본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자.

▶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로 결심하고 쟁기를 붙잡았다면, 오직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지, 이곳저곳 기웃거리면 안된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세상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과 같다.

(생각하기) 양다리를 걸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 1)에릭 리들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했는데, 주일이라는 이유로 100m 경기와 400m 계주에 출전을 포기했다. 그로인해 영국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대신 200m에서 동메달, 400m에서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2)4번째 동방박사 알타반, 그는 3명의 동방박사와 함께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드리러 가다가, 길에서 가난한 사람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느라, 정작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선물도 드리지 못했다. 하지만 먼 훗날 자신이 도왔던 그들이 바로 주님이심을 깨달았다.

(생각하기) 책임을 위해 신념을 포기할건가, 신념을 위해 책임을 포기할건가?

\*찬송: 453장 (3절, 4절)

\*합심기도

1.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함으로, 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2.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더해 갈 수 있도록..
3. 조수교회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4. 서로 믿가지로 섬기며 격려함으로, 구역모임이 따뜻한 가족 같은 모임이 되도록..

\*주님의기도

(작성: 이성실)